

나무꾼(소마후)

수 세기 동안 시라카미 산지의 산림에서는 벌목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목재 산업은 쇠퇴하고 있지만, 지역 문화에 미친 영향은 지금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역 방언으로 ‘소마후’로 알려진 ‘나무꾼’은 수 세기 동안 이 지역의 숲에서 일해 왔습니다. 철도가 등장하기 전 그들은 산에서 거대한 통나무 묶음을 손으로 끌어내리는 바지조리라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말이 끄는 썰매(돈비키라고 불림)로 통나무를 운반했습니다. 1911년에는 목재를 더욱 쉽게 운반하기 위한 첫 철도 노선이 건설되었으며, 선로는 1940년대 초까지 적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63년의 심각한 홍수로 인해 많은 선로가 유실되었으며, 이후 폐선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재는 일반적으로 크레인으로 트럭에 실어 운반됩니다.

전문 나무꾼 외에도 옛부터 있던 곰 사냥꾼(마타기)도 나무를 베었습니다. 마타기의 신앙과 관습은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 자신들이 사냥하는 곰과 일본산양을 산신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마타기 인구는 고령화와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마타기 문화는 주로 관광객을 위해 기획된 투어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역 숲에는 약 100종의 나무가 서식하고 있지만, 아키타현의 목재 산업은 아키타 삼나무라고 불리는 삼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외에 산벚나무(강도와 광택이 있는 윤기로 고급 건축에 사용됨), 밤나무(내수성이 있어 건설과 가구에 사용됨), 일본 자작나무(피아노 및 비행기 프로펠러에 사용됨), 가래나무(고급 가구와 바닥재에 사용됨)도 수확됩니다.

스바리호 동쪽 연안에 있는 향토박물관과 인포메이션 센터인 후루사토 자연공원센터에서는 소마후의 전통적인 도구와 숲에서 일하는 모습을 묘사한 동영상과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무료 Wi-Fi와 원격 근무를 위한 개인 공간도 있습니다.